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폐플라스틱 수거 국제인증

국내 1호·항만 분야 세계 최초
컨트롤 유니온 OBP 획득
단속·수거·리사이클 원단 생산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는 국제인증기구인 컨트롤 유니온(Control Union·로고)으로부터 해양폐플라스틱 수거 인증(Ocean Bound Plastic, OBP)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컨트롤 유니온은 전 세계 70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국내 지속가능 섬유분야 인증의 70% 수준을 심사하는 국제인증기구다.



이번에 공사가 받은 해양폐플라스틱 수거 인증은 국내 1호이며, 항만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해양폐플라스틱은 수거도 어려운데다 국제인증의 경우 추적성 확보를 위해 수거와 리사이클 과정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관계로 이번 인증 획득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공사는 해양환경보호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까지 실현을 위해 해양폐플라스틱 순환경제 사업을 추진중이다.

주로 ▲해경과 함께 선박의 플라스틱 해상 투기 단속 ▲유창정소업체들과 함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수거 ▲효성과 함께 해양폐플라스틱 리사이클 원단 생산 등이다.

공사는 해양폐플라스틱 수거 국제인증을 얻음에 따라 해양폐플라스틱 순환경제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명품 브랜드 등 유명 의류 기업들이 앞다투어 리사이클 원단을 활용한 제품 생산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양폐플라스틱을 활용한 리사이클 원

단의 시장 공급이 전무했기 때문에 여수광양항의 해양폐플라스틱 리사이클 원단의 가치는 더욱 높

이 평가되고 대기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차민식 사장은 “이 사업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해양환경보호 활동과 이를 활용한 제품 생산의 수익 사업을 연계시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차 사장은 이어 “이 과정에서 공사는 해양환경보호와 플라스틱 수거에 나설 수 있고, 지역 사회적기업과 함께 제품 개발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며 “기업 역시 고부가가치 의류 생산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 휴가철 주요 관광지 방역관리 강화

코로나 확산·풍선효과 적극 대응
65명 종합대책반 구성 주2회 점검

여수시가 휴가철을 맞아 관광시설 점검 강화 등 주요 관광지 방역관리 강화에 나섰다.

휴가철을 맞아 자칫 방역의식이 해이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풍선효과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서다.

여수시는 71개 관광시설 직원 전담반 운영을 강화해 다음 달 22일까지 방역점검을 주1회에서 주2회로 늘리고, 여름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에 대해서는 1일 1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준수, 입장객 거리두기, 발열체크,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등이며 방역 홍보 현수막 등 안내문 게시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관광시설 관리자는 1일 1회 이상 손잡이 등 공동 접촉 시설을 소독하고 있으며 현장 근무자인 공

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방역관리요원 등 총 133명에게 방역수칙 및 관광지 방역관리 온라인교육을 주 1회 실시하고 있다.

시는 역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주요 관광지에도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해 방문객 발열체크 등을 지속 수행하는 한편 13개 부서 65명으로 구성된 주말 관광종합대책반을 10월까지 가동해 해수욕장 등 관광지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관광안내소(여수공방, 여수엑스포역, 돌산공원, 오동도, 이순신광장) 5개소에 코로나19 자가 검사키트를 비치해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관광업계는 방역수칙에 따른 철저한 시설 방역을 이행해 주고 여행객들은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 관광객은 올들어 7월 현재 437만 8000명이며 숙박 투숙율은 66.2%로 전년 대비 관광객은 2.4%(10만 명), 숙박 투숙율은 7.6% 각각 증가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여수시가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까지 확산세를 보이자 입장객 거리두기와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 강화에 나서고 있다.

〈여수시 제공〉

세얼굴

“자치경찰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할 것”

고영재 고흥경찰서장



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재 서장은 여수출신으로 여수고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간부 후보 43기로 경찰에 입문

한 뒤 서울 동대문경찰서 수사과장, 강남경찰서 수사과장,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 전남정 과학수사 과장을 역임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군비 365억원으로 수해복구 벅차” 구례군, 정부 예산 추가 지원 건의

김순호 군수 행안부 방문

김순호 구례군수가 수해복구 자원 확보를 위해 중앙 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21일 구례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전남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비를 신설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구례군은 지난해 8월 수해로 1807억 원 규모의 피해를 보았다.

예방사업을 포함한 수해복구 사업비는 총 3877억원으로, 오는 2023년까지 국비 3252억원, 도비

206억원, 군비 419억원이 투입된다.

구례군은 올해까지 54억원을 편성했으며 추가로 365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구례군 1년 예산의 10%가 넘는다.

김 군수는 “지나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한 혜택을 늘려야 할 형편에 오히려 살림살이를 줄여 수해 복구에 예산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비 부담이 어려운 지자체에 한시적으로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곡성 희망복지 기동서비스 위기가구 맞춤형 복지지원



곡성군은 올해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를 최근 즉곡면 태평마을 등에서 15차례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는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찾아가 세탁, 칼 갈이, 이동 목욕, 농기계 수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이다.

지난 15일 기동서비스에서는 통합사례관리사가 가가호호 방문으로 폐암 재발 환자 등에게 집중 복지상담을 하고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공했다.〈사진〉

곡성군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복지 수요를 능동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정원이 있는 식당’

순천시 도시재생 구역에 조성

8월3일까지 사업 참가자 모집

순천시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정원이 있는 식당’을 만든다.

시는 종합버스터미널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구역의 도시경관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8월 3일까지 ‘정원이 있는 식당’ 조성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정원이 있는 식당’ 조성사업은 주민이 직접 정원을 기획, 디자인, 시공, 관리하며 순천시의 정원 문화 및 생태미식 콘셉트를 활용해 도시경관 및 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터미널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구역 내 식당을 운영하는 단체(영양주 포함 최소 3인 이상)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 15개 업소 이내로 선정해 단채당 200만원의 보조금과 정원 전문가 컨설팅(3회)을 지원한다.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장천현장지원센터 블로그를 참고해 오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장천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자메일(jcdurban@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도시재생과(061-749-3472) 또는 장천현장지원센터(061-749-3609)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